

주택정원 내에 민속식물 식재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송석호* · 심우경**

*고려대학교 대학원 환경계획 및 조경학전공 · **고려대학교 조경학연구소

I. 서론

조선시대 주택조경의 식재는 풍수지리나 신선사상, 음양사상, 유교와 성리학적 규범, 안빈낙도의 생활철학, 도가적 은일과 태평성대 회구 등에 의하여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가려 심었다(신상섭과 노재현, 2007: 60). 하지만 당시의 심미적이고 상징적인 식재는 도덕적 함의의 표현으로 당대의 정원문화에 한 측면으로 중요시된 것이며, 그 밑바탕에서 본질이 되었던 것은 인간이 주거공간에서 자연과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식재 즉, 약초와 채소, 과일, 수생식물 등의 실용적이고 생태적인 식재였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국가에는 그 땅에 자라면서 오랜 경험에 의해 구전되며, 재배되어온 민속식물이 존재하며, 이를 주거공간에 식재하여 약용, 염료, 생활용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경관 위주의 기능적인 식재 성향을 보이는 현대의 주택정원이 본래 전통주택정원에서 나타나는 실용적이고 생산적인 목적의 정원이 될 수 있도록 오랜 역사와 충분한 경험에 의해 구전되어 재배되어온 민속식물을 연구하였으며, 서울-경기지방의 민속식물 350여종 중에서 주택정원에 알맞은 120여종을 선별하였으며, 그 특징과 이용법을 제시하고, 식재설계에 올바른 활용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II. 본론

식물을 가꾸는 일은 인간이 거주하는 환경에 필수조건이었다.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범승지서』, 『제민요술』, 『사시찬요』, 『금양잡록』, 『농사직설』, 『산림경제』, 『임원경제지』 등의 많은 농서들과 『성호시설』, 『송남잡지』, 『대동운부군옥』 등의 백과사전류에는 식물의 풍속, 생리생태, 재배법, 약효, 용도 등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식물에 대한 생활지식을 기록으로 남겨 실용적인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하였다.

주거공간을 실용적으로 이용한 것은 궁원(宮苑)도 예외가 아니었다. 세종 때에는 『농사직설』이 편찬되고, 농사법을 시험하기 위해 경복궁 취로정 앞 논과 밭을 개간하여 사용하였고(정우진과 심우경, 2012: 75), 국가의 수용(需用)을 돕도록 감, 모과,

대추, 굴, 석류, 밤, 호두 등 과실을 수확할 수 있는 과목(果木) 심기를 권장하였다(이선, 2006: 367). 또한 친경례(親耕禮)의 연장선상에서 후원을 수전과 뽕나무밭으로 만든 성종 때의 농사지(農桑地)와 궁궐 곳곳의 공한지에는 채전(菜田)을 두었는데, 이는 국초부터 일제 강점기 직전까지 장소를 달리하며 운영되어 온 것으로 실용적 궁원을 가꾼 기록들이다(정우진과 심우경, 2012: 64-75).

또한 18, 19세기 조선 지식인 사회에서는 「장취원기(將就園記)」가 널리 읽혔는데, 내용에는 원림 내부에 약초를 심은 약란(藥欄)이 있고, 채소를 심은 남새밭, 과실을 심은 숲을 두었다는 기록이 있어 실용적인 정원의 모습을 이상적인 정원의 중심으로 보았다. 이에 조선후기 문인지식층인 허균, 이용휴, 유경중, 정약용, 장훈, 서유구, 홍길주 등도 약초, 채소, 과수를 식재하여 자급자족이 가능한 실용원을 의원(意園)의 기본으로 두어 소박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특히, 다산 정약용은 이상향을 사후세계에서 찾지 않고 소박한 전원생활이 가능한 현실세계에서 실용적인 이상향을 실천하고자 하였다(심우경, 2006: 102). 그래서 농촌의 주거 공간을 경영할 때 자급자족을 가계의 원칙으로 하였고, 원포(園圃)의 경영을 매우 중시하였다. 일례로 다산은 1809년 다산초당 주변에 아홉 단의 돌계단을 쌓아 채마밭을 조성하여 참마다 무와 부추, 파, 배추, 쪽갓, 가지, 아욱, 겨자, 상추, 토란 등을 골고루 심었고, 곁채에는 명아주와 비름을, 울 밑에는 구기자를 심었다(심경호, 2011: 241-261).

이렇게 조선후기로 갈수록 정원에 실용적인 식재가 증가했는데, 이는 국가적 권장과 이용후생(利用厚生)을 중시하는 실학의 영향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이선, 2006: 379). 또한 조선후기에 정원 조성이 서울 근기지역을 중심으로 갑작스런 붐을 일으킨 것은 도시문화의 발달과 궤를 같이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연과 가까이 하고픈 열망이 가져온 변화였다(정민, 2005: 54).

이렇듯 소박한 전원생활을 꿈꾸며 정원 안에 약초, 채소, 유실수, 수생식물 등 실생활에서 인간이 자연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실용적이고 생산적인 식재를 중요시한 점은 한국의 주택정원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주요한 특징이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전통문화가 전승되지 못하고 단절되었고, 한국전쟁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보이면서 주거의

형태가 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와 빌라와 같은 다세대 공동주택이 중심이 되면서 자연스레 조선후기의 실용적 정원문화 또한 퇴보하였다. 이렇게 전통과 철학이 부재한 상황에서 문화의 미국화(Americanization, Cocaolaization, Mcdonaldization)가 진행된 점은(심우경, 2010: 15) 한국정원문화의 정체성 계승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궁궐이나 사찰, 별서와 같은 중요문화재에 속해 있는 정원은 국가에서 관리되고,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어 다행스러운 점이나, 국민들이 거주하고 일상과 맞닿아 있는 주택의 정원문화는 특별한 규제 없이 공공연히 노출되어 서구의 정원문화가 잠식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의 주택조경 식재를 보면 마당보다는 잔디를 선호하고, 유실수보다는 조경수 위주로 식재되어 실용적이지 못하고 기능적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강하다.

다행스럽게도 현대 조경의 화두가 다시금 생산적 조경(productive landscape)으로 회귀되면서 로컬푸드(local food)산업이 활성화되었고, 영국 런던의 'CPULs(Continuous Productive Urban Landscapes)'와 미국조경가협회의 '먹거리 생산 도시(Edible City)' 운동 등(데이비드 트레시 저, 심우경과 허선헌 역, 2012: 24)이 도시농업(urban agriculture) 차원에서 성행하면서 기능적이고 경관 위주로 디자인되었던 주택의 정원문화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리하여 푸드마일(food-miles) 자체가 없고, 제로탄소(carbon free)를 지향하여 친환경적이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갈등 없이 자급자족이 가능한 실용적인 먹거리 정원(edible garden)이 주택정원의 핵심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탈리아인 카를로 페트리니(Carlo Petrini)에 의해 처음 시작하게 된 슬로푸드(slow-food)운동도 자신의 정원에 과채류를 정성껏 키우고, 시간을 투자해 음식을 만들어 먹자는 여유로운 삶을 지향하는 운동으로 식품안정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요즘, 스스로 가꾸는 실용적인 정원이 주는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텃밭, 베란다 화분, 자투리땅을 이용하거나 수경재배를 통해 다양한 채소를 길러 가족에게 안전한 식단을 제공하려는 가정들이 늘고 있고, 귀농인구의 증가와 주말농장, 취미 생활형 농업이 행해지면서 자신들이 직접 채소나 작물을 정원에 가꾸려는 도시인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식물 소재의 선택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여 대중적인 과채류를 심는 것에 지나지 않고, 민속식물보다 허브(herb)에 더 친숙하다. 이러한 문제는 앞서 언급된 실용적 정원문화의 퇴보와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풀이 될 수 있다. 이에 오랜 경험에 의해 재배되어온 민속식물을 고찰하여 주택조경에

도입하는 방안은 현 조경의 흐름에 부합하고, 실용적 정원문화의 계승이라는 두 가지의 시대적 사조를 충족하는 일일 것이다 (120여종의 민속식물 소재와 활용방안은 발표 PPT 참조).

III.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대의 주택정원에 오랜 역사와 충분한 경험에 의해 구전되어 재배되어온 민속식물 350여종 중에서 정원에 활용가치가 높은 120여종을 선별하였고, 그 특징과 이용법을 고찰하여 현대의 주택정원에 실용적인 식재설계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민속식물이 현대의 주택정원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학명, 지방명, 용도, 성상, 특징 등을 제시하고, 생리생태와 기능을 고려하였고, 알맞은 식재장소를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1. 강판권(2010) 역사와 문화로 읽는 나무사전. 파주: 글항아리.
2. 고주환(2011) 나무가 민중이다. 파주: 글항아리.
3. 국립수목원(2011) 한반도 민속식물Ⅷ 경기도지역. 국립수목원 산림자원보존과.
4. 네이버 지식백과.
5. 데이비드 트레시 저, 심우경, 허선헌 역(2012) 도시농업-도시농업이 도시의 미래를 바꾼다. 서울: 미세움.
6. 산림경제. 제1권 치농, 치포(한국고전종합DB).
7. 산림경제. 제2권 중수(한국고전종합DB).
8. 산림경제. 제4권 치약(한국고전종합DB).
9. 서유구 저, 노평규, 김영 역(2010). 임원경제지 관휴지. 서울: 소와당.
10. 서유구 저, 박순철, 김영 역(2010). 임원경제지 만학지. 서울: 소와당.
11. 서유구 저, 정명현, 김정기 역(2008). 임원경제지 본리지. 서울: 소와당.
12. 성환길, 이용호, 성충기(2012) 약초 민간요법. 서울: 푸른행복.
13. 솔피(2011) 우리 몸에 좋은 나물대사전. 서울: 휴그린.
14. 송홍선(1996) 한국의 나무문화. 서울: 문예산책.
15. 신상섭, 노재현(2007) 전통마을 토지이용과 주택조경에 관한 기초 연구. 한국녹지환경디자인학회지 3(2): 56-64.
16. 심경호(2011) 다산의 국토사랑과 경영론. 2011 국토연구원 기획총서.
17. 심우경(2006) 조선후기 지식인들이 선호한 조경식물과 조경문화. 한국실학연구 12(0): 91-120.
18. 안대회(2004) 18~19세기의 주거문화와 상상의 정원. 진단학보 97(0): 111-138.
19. 양승(2010) 약선식품 동의보감. 안양: 세계중약양선연구소.
20. 옥담사집 만물편-화목류, 과실류(한국고전종합DB).
21. 이미옥, 김진우(2012) 이야기가 있는 나물밥상 차리기. 파주: 성안당.
22. 이상희(1998)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1, 2, 3. 서울: 넥서스BOOKS.
23. 이선(2006) 우리와 함께 살아온 나무와 꽃-한국 전통 조경 식재. 서울: 수류산방.
24. 정민(2005) 18~19세기 문인지식인층의 원에 취미. 한국한문학회연구 35(0): 35-77.
25. 정우진, 심우경(2012) 조선시대 궁궐 후원 농경지 조영의 특성. 한국조경학회지 40(4): 62-77.
26. 조재삼 저, 강민구 역(2008) 교감국역 송남집지 11. 서울: 소명출판.
27. 최영전(1992) 한국민속식물. 서울: 아카데미서적.
28. 허준 저, 동의과학연구소 역(2002) 동의보감 제 1권 내경편. 서울: 휴머니스트.